

“美 ‘창조적 제안’은 北석탄·섬유 금수 유보”

스톡홀름 실무협의를 제재완화 등 비핵화 보상책 제시 日요미우리 보도...핵물질 인도·영변 플러스 알파 요구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라 실질적 비핵화 조처를 하는 조건으로 유엔 안보리의 경제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보상책을 미국이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재 완화의 내용은 석탄, 섬유, 수출금지를 일시 유보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석탄과 섬유는 철광석, 해산물과 함께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을 겨냥해 단행한 전면 금수 대상에 두 품목을 포함했다.

요미우리는 한미일의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이 같이 보도하면서

미국 측이 제시한 보상안은 미 국무부가 실무협의 후 설명에서 밝힌 ‘창조적 제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정부는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제재를 견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비핵화 실현 전 단계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인정하는 제안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요미우리는 밝혔다.

지난 5일 열렸던 스톡홀름 실무협의에는 미국 측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북측에선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화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

에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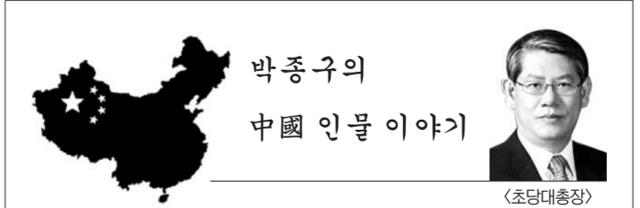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북한 핵시설과 생물·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 관련 시설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제로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는 실질적 조치인 이른바 ‘영변 플러스(+)'알파’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지원을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안전 보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제재 완화 조건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지금까지 취한 조치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한미합동 군사연습 실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배지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지난 2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3형’의 시험 발사가 북미대화 전례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미측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4번째 북미 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단계적인 보상 조치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2〉 이항

이항(李沆, 947-1004)은 현재 허베이성 한단시 페이상현에 해당하는 명주 비향 출신이다. 자는 태초이며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송 태종과 진종때의 명신이다.

이항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좋아했다. 말이 적고 도량이 컸다. 태평흥국 5년(980) 진사갑과에 합격해 관직에 나아갔다. 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우찬선대부와 사서편찬적인 저작량에 임명되었다. 986년에는 우보궐과 지제고에 기용되었다. 태종은 988년 그를 방원외랑으로 승진시켜 한림학사로 임명했다. 991년 태종은 그의 학문과 경륜을 높이 사 품위 있고 단정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동년 9월 급사증으로 승진해 부재상인참

서를 보좌토록 하였다. 진종이 소인배들이 당파를 결성해 정치를 문란하고 간신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문했다. 그는 답하기를 “간신들의 연사가 충성스럽고 믿을만한 것처럼 느껴지면 만 이는 당나라 재상 노기가 덕종을 기만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종이 답하기를 “간신은 말로는 관벌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노기는 덕종때의 관리로 양세법에 도입한 재상 양염을 모함해 사사케한 당왕조의 대표적 간신이었다.

북방을 장악한 요와의 국경 분쟁으로 북송은 안보상 늘 취약했다. 요의 성종은 송 정벌 전쟁에 나섰다. 남송은 재상 구준의 강경론과 참정사 왕흥약의 온건론이 크게 대립했다. 왕흥약은 금릉으로 진요수는 성도로 파천할 것을 청하였다. 결국 구준의 건의에 따라

송 태종과 진종때의 명신

지정사(參知政事)로 발탁됐다. 993년 모친상을 치른 후 하남성 지부를 지냈다. 995년 태종은 진왕 이항을 태자로 삼고 그를 예부시랑에 임명했다. 이지와 함께 태자빈객이 되었다. 997년 태자가 진종으로 즉위하자 호부시랑으로 임명되었다. 998년 태종실록 편찬작업에 참여해 50권 실록을 완성했다. 999년 중서시랑에 임명되었다. 요나라의 성종이 송나라 토벌을 선언하자 진종이 직접 북벌에 나섰다 그를 수도 개봉을 지키는 유수에 임명했다. 1000년 진종이 귀경하자 교외에서 직접 영접했다. 문하시랑과 상서우복야의 관직이 주어졌다. 1004년 7월 병을 얻자 진종이 어의를 보내 진찰토록 하고 직접 찾아가 위문하였다. 같은 달 58세로 개봉에서 사망했다.

직위와 직분에 맞는 인재 기용을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신봉했다. 불편부당한 인사를 추구했으며 봉양이나 당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진종은 틈틈이 그에게 국정을 자문 받았는데 “치국의 제일 도리는 겉치레만 있고 경박한 인물을 기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고 건의하였다. 어떠한 인물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하문에 매순, 증치요 등이 그러한 소인이라고 응답했다. 후일 증치요가 섬서성의 운중서를 보좌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증치요를 파직하고 다른 관료로 하여금 운중

진종의 진정이 이루어졌다. 그는 황제 모친상을 치른 후 하남성 지부를 지냈다. 995년 태종은 진왕 이항을 태자로 삼고 그를 예부시랑에 임명했다. 이지와 함께 태자빈객이 되었다. 997년 태자가 진종으로 즉위하자 호부시랑으로 임명되었다. 998년 태종실록 편찬작업에 참여해 50권 실록을 완성했다. 999년 중서시랑에 임명되었다. 요나라의 성종이 송나라 토벌을 선언하자 진종이 직접 북벌에 나섰다 그를 수도 개봉을 지키는 유수에 임명했다. 1000년 진종이 귀경하자 교외에서 직접 영접했다. 문하시랑과 상서우복야의 관직이 주어졌다. 1004년 7월 병을 얻자 진종이 어의를 보내 진찰토록 하고 직접 찾아가 위문하였다. 같은 달 58세로 개봉에서 사망했다.

직위와 직분에 맞는 인재 기용을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신봉했다. 불편부당한 인사를 추구했으며 봉양이나 당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진종은 틈틈이 그에게 국정을 자문 받았는데 “치국의 제일 도리는 겉치레만 있고 경박한 인물을 기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고 건의하였다. 어떠한 인물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하문에 매순, 증치요 등이 그러한 소인이라고 응답했다. 후일 증치요가 섬서성의 운중서를 보좌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증치요를 파직하고 다른 관료로 하여금 운중

직위와 직분에 맞는 인재 기용을 인사의 기본원칙으로 신봉했다. 불편부당한 인사를 추구했으며 봉양이나 당파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진종은 틈틈이 그에게 국정을 자문 받았는데 “치국의 제일 도리는 겉치레만 있고 경박한 인물을 기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고 건의하였다. 어떠한 인물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하문에 매순, 증치요 등이 그러한 소인이라고 응답했다. 후일 증치요가 섬서성의 운중서를 보좌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증치요를 파직하고 다른 관료로 하여금 운중



北 문덕철새보호구서 세계철새의 날 행사 북한 세계철새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3일 문덕철새보호구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국 성장·일본 지위하락이 협한 확산의 중요 원인”

나카지마다케시 교수 분석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지위 하락과 더불어 일본에서 ‘협한(嫌韓) 기류가 대두했다는 일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나카지마다케시(中島岳志) 도쿄공업대 교수(근대 일본 정치사상사)는 ‘한국이 경제성장으로 국력을 키우는 한편 세계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한 것’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논조가 확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14일 보도된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세도 일본에 할 말은 한

다’로 변화해 갔다. 일부 일본인은 자신을 상실하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한국이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보수파, 특히 장년층에서 (혐오 감정이) 더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은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을 과거에 알본 듯한 중·노년 세대에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이 세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 그것이 지금 일본 내 서널리즘의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980년대에 한일 관계에 갈등 요소로

작용한 3가지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일본 분위기가 협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한국의 성장 및 일본의 상대적 하락과 더불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나카지마 교수는 ▲전쟁 체험 세대가 일본 논란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1982년 취임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전범 합사 사실이 알려진 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공식 참배하거나 각료들이 한국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발언으로 역사 인식 문제가 부상한 것을 일본에서 벌어진 2가지 변화로 꼽았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